

「帝國的」帝國과 「帝國主義的」帝國

呂 井 東

<目 次>

I. 序 論
II. 美國과 소련의 全地球의 役割
III. 「帝國」, 「帝國的」, 「帝國主義的」
IV. 美國의 「帝國的」帝國과 소련의 「帝國主義的」帝國
V. 追 記

I. 序 論

戰後에 美國萬能의 神話, 소련陰謀의 神話가 漫연하여 지난날 우리는 儀式的 反共主義의 催眠術에 걸리고 있었음을 否認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共產主義도 資本主義도 사상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모든 나라는 내셔너리즘의 강열성이 前面에 나타나고 있다. 美國의 닉슨·독트린도 소련의 修正主義도 내셔너리즘의 강열성을 示顯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萬能이든 陰謀이든 美國과 소련의 神話時代가 展開되었다는 것은 美國과 소련의 全地球의 役割擔當時代의 展開를 의미하는 것이다. 내셔너리즘이 전면에 顯在化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美國과 소련의 全地球의인 役割과 介入의 磼연한 狀況을 否定할 수는 없을 것이다. 軍事面과 經濟面에서 특히 그러함을 볼 수 있다.

戰後 新生國들은 美蘇의 神話에 희생된 것도 사실이지만 得本 것도 없지는 않다. 美國만이 萬能일 수는 없고 소련만이 꼭 陰謀일 수는 없다. 萬能이나 陰謀나 하는 것은 抽象的 感情的으로 決定되는 것이 아니다. 具體的 實證的으로 검토하고 난 뒤에 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陰謀와 非理의 神話나 理解와 順理의 神話나에 따라 非難과 罵倒의 대상으로 될 수도 있고 歡迎과 賞讚의 대상으로 될 수도 있다. 神話란 곧 全地球의 役割과 介入을 의미하기 때문에 「帝國」의 구실을 말한다. 오늘날 美帝國이니 소帝國이니 하는 것은 하나의 浬법한 叙

筆者: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外交學科 副教授.

述用語로 까지 발전 되었다. 그 까닭은 美國이나 소련이 엄연한 全地球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기 때문인 것이다.

帝國이 陰謀와 非理에 차있으면 「帝國主義的」帝國이고 理解와 順理에 차있으면 「帝國的」帝國이라고 호칭될 수도 있는 것이다.

「帝國」, 「帝國主義的」 및 「帝國的」이라는 用語를 無分別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帝國的」(imperial)이라는 말과 「帝國主義的」(imperialist)이라는 말은 그 뜻을 전혀 달리함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罵倒의 對象으로 삼는 것은 「帝國的」帝國이 아니라 「帝國主義的」帝國인 것이다.

本稿의 目的은 帝國的의 概念을 분명히 하여 「帝國的」帝國과 「帝國主義的」帝國간의 의미상의 상이성을 밝힘과 아울러 오늘날의 美帝國과 소帝國的의 實相을 軍事的 측면에서 고찰하고 연후에 美國은 「帝國的」帝國이요, 소련은 「帝國主義的」帝國이라는 것을 理論的으로나 實證的으로 밝혀 보려는 데 있다. 또한 「追記」로서 非同盟그룹의 非理를 지적해 보려는 데 있다.

II. 美國과 소련의 全地球의 役割

全地球의 役割의 主要變數는 經濟力과 軍事力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本稿에서는 軍事的 側面에서만 고찰하기로 한다.

美國과 소련의 軍事力은 空前的의 것으로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莫强하다. 兩國의 軍事

<表 I>

	軍人	戰術飛行機	爆擊機	탱크	潛水艦	航空艦母	主艦隊	戰略核미사일	戰術核미사일
美 國	210萬	5,500	498	9,000	115	15	161	1,710	20,000
소 련	420萬	5,150	160	4,000	325	1	219	2,310	15,000

出處: "The Strategic Balance", in Newsweek, March 17, 1975, p.18.

<表 II>

	軍人	防衛豫算	戰術飛行機	戰略爆擊機	潛水艦	航空艦母	主艦隊	攻擊用核力	
								SLBM	ICBM
美 國	2,174,000	858億弗 (74-75)	5,000	503	73	15	177	656	1,054
소 련	3,525,000	960億弗 (73-74)	5,350	840	245	1	221	720	1,575

出處: The Military Balance 1974-1975,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London, pp.5-10.

註: 本表는 上記 出處에 있는 統計를 表 I과 比較하기 쉽도록 筆者가 임의로 配列한 것이다. SLBM은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의 略號이다.

力을 1975年 3月 17日字 「뉴스위크」紙와 「The Military Balance 1974-75」에 나타난 統計를 여기서 소개해 보면 表 I, 表 II와 같다.

다른 統計數値는 말할 것도 없고 表 II에서 나타내고 있는 美蘇의 防衛豫算만 보더라도 그 規模의 尙大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韓國의 GNP나 韓國의 防衛豫算과 比較해 보면 美蘇의 軍事力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The Military Balance 1974-1975」에 보면 1973年度 南韓의 GNP는 126億弗로 計上하였고 南韓의 防衛豫算은 5억5천8백만弗로 計上되어 있다. (1) 이 統計는 1弗當 397원(74)으로 計算한 것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美蘇의 防衛豫算과 比較해 보면 美國의 防衛豫算은 韓國 GNP의 33倍이고 韓國防衛豫算의 153.7倍나 되며 蘇련防衛豫算은 韓國 GNP의 36.9倍이고 韓國防衛豫算의 172倍나 된다. 이렇게 對比시켜볼 때 美蘇의 防衛豫算은 보통사람으로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尙大한 것임을 알 수 있다.

美蘇의 軍事力配置狀況을 살펴보면 그들의 全地球的 役割은 새삼 놀랄만하다.

1975년 3월 17일자 「뉴스위크」紙에 실린 統計를 表로 作成하면 表 III과 같다.

<表 III>

		軍 人	戰術飛行機	탱 크	航空母艦	主要艦隊	戰術核미사일
歐 洲	NATO	78萬	2,700	6,000			7,000
	WARSAW	93萬	2,900	16,000			3,500
極東 地域	美 軍	19萬	240		3	45	
	소 련 軍	60萬	1,100		0	55	
東 南 亞 地 域	美軍및同盟軍	100萬(美軍 23萬포함)	571	795		16	
	越 盟 軍 및 共 産 叛 亂 軍	63萬3千	203	900		0	
印 地 度 洋 域	美 軍	0				0	
	소 련 軍	2,000-3,000				20	
페 르 지 사 해	美 軍	500-600				3	
	소 련 軍	600				0	
地 中 海 域	美 軍	31,000	180		2	40	
	소 련 軍	20,000	0		0	40	

出處 : "The Strategic Balance", in Newsweek, March 17, 1975, p.18.

IISS에서 發刊한 「The Military Balance 1974-1975」에 보면 美國과 소련의 軍事力 配置狀況은 다음과 같다. (2)

(1) The Military Balance 1974-1975, IISS, London, p.56.

(2) SSM은 Surface-to-Surface Missiles의 略號.

美國의 軍事力配置狀況 : 陸軍 782,000의 대부분은 美本土周邊에 配置되어 있으나 그외에도 파나마地帶, 韓國, 오끼나와, 하와이, 西獨, 伊太利등지에 많은 軍事力이 配置되어 있다. 具體的으로는 西獨에 7軍이 있으며 19萬名の 兵力과 2,100臺의 中裝備탱크가 駐留하고 있고 이태리에는 1個의 SSM⁽³⁾步兵隊가 있다. 韓國에도 26,000의 陸軍兵力이 駐屯하고 있다.

美海軍은 551,000名으로서 그 配置狀況은 全世界에 펼쳐고 있다 大西洋에는 第2艦隊(4航空母艦, 67主要軍艦, 1個 水陸兩作戰部隊), 東太平洋에는 第3艦隊(6航空母艦, 56主要軍艦), 地中海에는 第6艦隊(2航空母艦, 17主要軍艦, 2個水陸兩作戰部隊), 西太平洋에는 第7艦隊(3航空母艦, 25主要軍艦, 2個水陸兩作戰部隊), 페르샤灣에는 中東艦隊(1個水陸兩作戰部隊, 2主要軍艦)으로 되어 있다.

美空軍은 645,000名 중 그 兵力의 海外配置狀況은 다음과 같다. 47,000名으로 구성되는 在歐洲美空軍(USAFE)이 있는데 USAFE의 구성은 英國의 第3空軍, 西班牙의 第16空軍, 西獨의 第17空軍, 土耳其의 補給部隊 등으로 되어 있다. USAFE 외에도 48,600名으로 구성되는 太平洋空軍(PACAF)이 있는데 PACAF의 구성은 日本, 韓國의 第5空軍과 泰國의 第7空軍과 比律賓, 台灣의 第13空軍 등으로 되어 있다.

소련의 軍事力配置狀況 : 180萬名으로 구성되어 있는 陸軍中 63個師團은 歐洲에 속하는 소련방에 配置되었고 中歐와 東歐에는 31個師團이 주둔하고 있다. 中歐와 東歐에 있는 具體的인 內容을 보면 東獨에 20個師團, 폴란드에 2個師團, 헝가리에 4個師團, 체코에 5個師團이 配置되어 있다. 다음에는 소련中央部에 5個師團, 소련南部에 23個師團, 中蘇國境地方에 45個師團이 配置되어 있다.

소련의 海軍은 475,000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配置狀況은 全世界的이다. 北極艦隊(80의 核潛水艦을 포함한 160의 潛水艦과 56主要軍艦)과 발틱艦隊(30潛水艦과 50主要軍艦) 黑海艦隊(20潛水艦과 60主要軍艦), 太平洋艦隊(40의 核潛水艦을 포함한 100의 潛水艦과 55主要軍艦) 등으로 되어 있다.

소련의 空軍은 40萬名인데 소련의 戰術空軍力의 約半은 西歐를 겨냥하고 있으며 4分の 1은 中共을 겨냥하고 있고 1,250臺의 전술항공기가 東歐에 配置되어 있으며 이락에는 T. 1-22戰隊가 配置되어 있기도 하다.

다음에는 美蘇가 행하고 있는 軍事的 公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全地球의 인 役割과 介入 度를 直感할 수 있을 것이다. 美國이나 소련은 全世界的인 軍事的 commitments를 하고 있다. 그것은 美國이 中心인 NATO나 소련이 中心인 WARSAW조약기구만 들어도 족할 것이다.

(3) The Military Balance 1974-1975, pp.5-10.

특히 美國의 汎世界的인 軍事的 責務는 空前的 것인양 42個國과 個別的 集團의 防衛條約을 체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여하면 Rio條約(21個國), NATO(13個國), SEATO(4個國), ANZUS(2개국), 日本, 比, 韓國, 臺灣과 個別的인 相互防衛條約을 체결하고 있다.⁽⁴⁾ 重複을 피하면 美國이 軍事的 commitments를 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42個國이나 된다.

美蘇의 軍事적 公約상을 보면 全地球的인 軍事役割은 그들의 空前的 責任인양 생각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叙上한 바와 같이 美蘇兩國이 保有하고 있는 軍事力이나 그들의 防衛豫算이나 海外軍事力配置狀況이나 또는 各國에 대한 軍事的 commitments 등의 軍事的 측면에서 볼 때 美蘇兩國은 冷戰時代와 하나도 다를 것 없이 全地球的 役割과 介入을 담당하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軍事的 측면에다가 經濟的 介入度를 첨가해서 생각한다면 美蘇의 全地球的인 役割과 介入은 참으로 空前的 것일 수 밖에 없다.

오늘날 美蘇가 담당하고 있는 全地球的 役割은 古典的 帝國主義國家들이 담당했던 役割보다 훨씬 巨大하고 深大한 것이다. 따라서 美蘇가 갖는 空前的 全地球的 役割과 介入은 「帝國的」, 「帝國主義的」 또는 「帝國」이라는 用語를 誘引하기에 足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誘引이 「美帝國」, 「소帝國」 또는 「帝國主義的 美國」, 「帝國主義的 소련」이라는 用語를 평범하게 서술하는 현실을 만들었다.

美國사람 자신이 美國을 「美帝國」이니 「帝國的 美國」이니 하는 용어를 현실을 서술하는 평범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⁵⁾ 「美帝國」, 「소帝國」이라고 호칭되는 까닭은 叙上한 바 있는 엄연한 兩國의 全地球的인 軍事的 役割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序論에서 言及했듯이 帝國이라고 해서 모두 罵倒의 對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非理의 陰謀가 橫行할 때 惡罵의 對象으로 되는 것이다.

III. 「帝國」, 「帝國的」, 「帝國主義的」

「帝國」(empire)이라는 用語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뜻을 갖는다. 하나는 抽象的 權威的인 意味이고 다른 하나는 具體的 實在的인 뜻이다. 물론 이 兩者間에는 意味上的 不透明성과

(4) New Debate: "Is U.S. carrying too heavy a burden abroad?" in U.S. News & World Report, July 7, 1975, pp. 24-27.

(5) 하나의 例로서 Ronald Steel은 그의 著書 A Pax Americana: The Cold War Empire—how it grew and what it means, 1967. 라는 책 第2章에서 「美帝國」이라는 用語를 현실을 서술하는 平凡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 결코 罵倒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에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⁶⁾

帝國이라고 할 때는 단지 抽象的 權威的인 最高權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權力이 對內的으로나 對外的으로 현실적으로 행사되는 具體的 實在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抽象的 의미로서의 帝國」은 最高權 또는 無條件的인 성질의 權力을 의미한다. 실제로 制海權과 同意語로서의 海洋帝國도 制海의 정도나 制海의 強行手段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公海는 萬國共有의 것이고 特定國家의 所有가 아닌 까닭에 海洋帝國은 法律的으로 正當化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海洋帝國이라는 것은 하나의 公認된 權威도 아니고 더더구나 永久的인 最高權도 아니며 한나라가 必要로 할때 自國의 의사를 강요하는 名目上的 不可抗力的인 國家能力일 뿐이다. 1815년 부터 1914년까지 英國海軍에 의해서 수행된 海洋帝國은 他競爭國이 감히 시도하지도 못할 無敵性에 대한 評判에 기인한 것이었다.⁽⁷⁾

되풀이하면 抽象的 權威的 의미로서의 帝國은 法律的으로 공인된 永久的인 실제권리일 수는 없고 오직 名目上的 추상적인 權威行使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무의무식중에 他國으로부터 最高權威에 대한 評判을 받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具體的 實在的 의미로서의 帝國은 抽象的인 權威行使의 概念이 아니라 支配國의 法을 單一の 最高權으로 하여 그것에 복종토록 하는 現實的인 權力行使의 實在인 것이다. 그러므로 具體的 實在的 의미로서의 帝國은 一國家와는 對比되는 것이기 때문에 領土의 範圍에 力點을 두는 것이 아니면 單一法規에 종속되는 多様な 人間集團에 力點을 두는 것이다.

결국 具體的 實在的 의미로서의 帝國은 征服으로써 他國의 主權을 부정하고 自國法으로 統治支配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歷史的 實在은 여러가지 類型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스펀더가 말하는 페르샤의 人民帝國, 亞시리아의 宗教帝國, 프리드리히二世의 支配者의 帝國, 資本主義時代의 帝國등이 있을 수 있고⁽⁸⁾ J. 스트레이치가 말하는 始源的 奴隸帝國, 略奪의 商業帝國, 資本主義的 帝國등이 있을 수 있고⁽⁹⁾ 레이몽·아롱이 말하는 세가지 帝國 즉 로마帝國, 多民族帝國, 植民帝國 등이 있을 수 있다.⁽¹⁰⁾

(6) Raymond Aron, *The Imperial Republic,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1945-1973*,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74) p.253.

(7) *ibid.*, p.253.

(8) See Two Essays by Joseph Schumpeter: *Imperialism and Social Classes*, introduction by Bert Hoselitz, tran. by Heinz Norden 1955, pp.1-98.

(9) John Strachey, *The End of Empire* (Frederick A. Praeger, 1959), p.325.

(10) 레이몽·아롱이 말하는 3種의 帝國이란 數世紀동안 存續하였던 嚮수로서의 로마帝國과 一次大戰으로 終結이난 Hapsburg家와 Romanov家와 Sublime Porte家の 多民族帝國(Multinational Empire)과 第二次大戰까지 존속한 英國, 佛蘭西, 和蘭, 白耳義의 植民帝國을 말한다. Raymond Aron, *op. cit.*, p.259.

지금 소개한 여러帝國의 類型은 모두가 壓迫과 支配가 強壓的인든 自發的인든 法的으로 公認된 權威의 結果라는 것이 특색이므로 그 모두는 具體的 實在的 帝國이 아닐 수 없다.

帝國이 갖는 두가지 뜻, 말하자면 抽象的 權威의 의미와 具體的 實在的 의미로 부터 「帝國的」(imperial)과 「帝國主義的」(imperialist)이라는 두가지의 形容詞가 派生되었다. 「帝國的」이라는 形容詞는 「추상적 의미로서의 帝國」에서, 「帝國主義的」이라는 形容詞는 「具體的 의미로서의 帝國」에서 그 의미의 淵源이 由來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抽象的 權威的 帝國은 「帝國的」帝國이고 具體的 實在的 帝國은 「帝國主義的」帝國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이몽·아롱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歷史家나 政治家들은 法的 實在的 의미로서의 帝國을 건설할 목적없이 全世界에 干涉하는 外交에 대해서는 帝國的이라는 用語에 적용하고 자기들의 支配와 擄取하려는 의도는 掩蔽하고 상대방만을 非難하려는 外交에 대해서는 帝國主義的이라는 用語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11)

이렇게 볼때 우리가 의당 罵倒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帝國的」帝國이 아니라 「帝國主義的」帝國임을 알 수 있다. 「帝國的」帝國은 弱少國을 法的으로 強壓征服하기 보다는 오히려 防禦保護하기 위한 光榮된 歷史的 記錄일 수도 있는 것이다.

被保護國의 立場에서 보면 「帝國的」帝國은 약소국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또는 要請함으로써 결과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帝國主義的」帝國과는 다를 수 있는 條件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決定的 最高權이 保護國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被保護國과의 合議의 結果로서 수행되기도 한다는 점에서도 「帝國主義的」帝國과는 다른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슈페터가 말하는 帝國의 歷史的 諸範例나 J·스트레이치가 말하는 奴隸帝國, 商業帝國, 資本主義的 帝國이나 또는 레이몽·아롱이 말하는 三種의 帝國(註(10) 參照할것)도 모두 「帝國主義的」帝國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 공공연히 帝國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美國과 소련은 어느것이 「帝國主義的」帝國일까? 또는 兩쪽이 모두다 「帝國主義的」帝國인 것일까? 이 물음을 해명하는 것이 序論에서 言及한 바 있듯이 本稿의 目的인 것이다.

IV. 美國의 「帝國的」帝國과 소련의 「帝國主義的」帝國

오늘날 美國과 소련 양국 중 어느 나라가 「帝國主義的」帝國일까? 結論부터 말한다면 그것은 美國이 아니라 소련이고 美國은 오직 「帝國的」帝國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왜 그럴까? 그 해답은 兩國間의 軍事的 Commerce의 內容이나 節次上的 차이, 戰

(11) *ibid.*, p. 255.

後植民地政策의 차이, 兩國이 가지고 있는 憲法構造上的 차이등을 살펴보면 자명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龐大한 軍事力을 가지고 있는 美國은 戰後에는 패시즘打倒의 기치로 부터 공산주의타도의 기치하에 새로운 介入主義를 채택하게 되었다. 즉 패시즘에 대한 鬪爭으로서의 十字軍은 공산주의에 대한 鬪爭으로서의 十字軍으로 代替되었다. 이와같은 공산주의 威脅에 대처하려는 새로운 使命感은 새로운 人類價値의 實現과 福祉世界에 대한 責任이라는 課題를 앞세워 콤미트먼트의 擴大와 介入主義의 積極성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介入主義의 嚆矢는 1947年 3月의 트루먼·독트린이고 이것으로 하여금 歐洲復興計劃과 NATO를 結과하게 되었고 그 후 아시아까지 확대되어 CENTO, SEATO, ANZUS까지 結과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와는 Rio條約까지 結과하게 되었다.

史上最强의 軍事力과 經濟力을 가진 美國이 傳統의인 孤立主義를 탈피하고 戰後 介入主義로 轉向하게 된 緣由는 歐洲의 擁護者, 中南美의 護衛者, 新生國의 保護者, 貧困國의 助力者의 행동구실을 하는 것이 正道라고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美帝國은 介入에 의해서 공산주의의 恫嚇성을 封鎖하고 人類의 希望과 安全을 提供하려는 一種의 福祉帝國觀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美帝國觀을 미국의 同盟國側에서 본다면 美帝國은 同盟國측에 이용되어 効用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었고 또 反植民主義의 절규를 美帝國도 同調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實證되면 美國은 분명히 「帝國主義的」帝國이 아니라 「帝國的」帝國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전후 美國이 反植民主義에 同調했음은 英國, 佛蘭西, 和蘭등과 같은 新版隸屬植民主義에 反對하면서 네루, 스카루노, 닛셀 등이 영도하는 民族的 獨立運動을 권장한 것만 보아도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美國의 세계介入主義의 상징인 트루먼·독트린은 其實 民族自決主義의 道德的 指標이며 大西洋을 건너 非共產유럽까지 擴大適用된 몬로·독트린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에 美帝國이 同盟國側에 이용되어 効用이 발휘되었다는 것은 集團的인든 個別的인든 美國과의 相互防衛條約은 同盟國(被保護國)들의 열망의 產物이었다는 점만으로서도 충분할 듯 하다. NATO, SEATO, Rio條約을 비롯하여 그의 여러 雙務條約 모두가 同盟國들의 願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물론 美國의 希望과 融合되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反하여 소련의 경우는 美國과는 전혀 달리 同盟國들의 願이라기 보다는 一方的인 強要의 산물이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와르소條約機構를 비롯하여 소련과 맺은 여

타의 雙務的인 條約이 거의 強壓的이고 一方通行的인 것이었음은 否定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체코 侵攻事態 이후 制限主權論까지 들고 나온 것만 보더라도 소련은 얼마나 一方的이고 強壓的인 처사에 一貫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自由陣營에서는 감히 論難하지도 못할 制限主權論을 공공연히 제창한 하나의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소련의 帝國主義的意圖를 충분히 看取할 수 있을 듯 하다.

集團의이든 雙務的이든 美國과 맺은 同盟條約은 그 대부분이 同盟國들의 환영의 產物이었고 또 당면문제는 相互討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理解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이 사실이지만 實際面에서 深察해 보면 아무리 同盟國 全部가 條約實踐에 참가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補助的인 役割에 지나지 않을 뿐 美國은 여전히 最高의 決定權을 留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美國의 全地球의 役割과 介入은 無視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美國을 帝國이라고 呼稱하게 되는 所以然인데 그 帝國이「帝國的」인 것이냐, 「帝國主義的」인 것이냐가 문제인 것이다.

「실로 美國은 트루먼·독트린에서 言及하고 있는 이른바 “外的壓力에 대해서 또는 小數에 의한 計劃된 服從에 대해서” 자국을 防衛하고자 하는 국가를 도왔기 때문에」 美國이 행하고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군사적인 對外的 콤미트먼트를 帝國主義라는 用語로 호칭한다는 것은 잘못일거라고 레이몽·아롱은 지적한 바 있다.⁽¹²⁾ 또한 그는「古典的인 政治의 意味로서의 帝國을 건설하려는 打算的인 形態로서의 帝國主義는 前面에서 後退한 데 반하여 弱少國家들의 國內生活과 外交行動에 영향하는 強大國의 의사와 다른 여러 국가들 간의 不平等關係의인 형태로서의 帝國主義가 데카르트의 常識처럼 오늘날 보다 더 유행했던 때는 없었다.⁽¹³⁾」고 갈파하였다. 이 말은 오늘날 不平等關係가 유지되는 美國의 帝國志向性은 현저하나 그것은 결코 傳統的인 古典의 帝國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美帝國은 「帝國主義的」인 것이 아니라 「帝國的」인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경우는 判異함을 볼 수 있다. 「現國際體制 內에 있는 列強中에서 오직 소련만이 歷史와 征服에 의해서 生成된 多民族帝國의⁽¹⁴⁾ 典型的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 人民중의 하나인 大러시아人民의 主導的 役割과 다른 非러시아人民이나 人民集團들에게 叛亂衝動이 잠재되어 있다는 證據는 부르조아民族主義를 자주 非難하는데서 看取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소聯邦共和國은 하나의 聯邦이라기 보다는 傳統的인 帝國에 恰似하다.⁽¹⁵⁾」

(12) *ibid.*, p.258.

(13) *ibid.*, p.259.

(14) 上記 註(10)에서 보듯이 레이몽·아롱이 古典의 帝國을 3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중 하나를 말한다.

(15) Raymond Aron, *op. cit.*, p.259.

고 레이몽·아롱은 말하고 있다.

1917年 불쇄비키革命 이래 오늘날까지 소련이 걸어온 植民地政策을 살펴보면 레이몽·아롱의 見解가 妥當함을 충분히 뒷받침해 준다.

불쇄비키革命 이후 러시아帝國主義의 嚮往상을 휴·세톤-왓슨(Hugh Seton-Watson)과 브라이언·크로지어(Brian Crozier)의 著書에 따라 檢討要約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⁶⁾

불쇄비키革命前 부터 러시아帝國안에는 支配的인 大러시아에 反抗하는 民族主義가 成長하고 있었으며 여러 從屬民族들 사이에서 民族的 衝突이 여러차례 있기도 하였다. 레닌은 한 民族이 다른 民族을 支配하는 것은 反對하였고 未來의 社會主義社會에서는 民族的 抑壓이나 差別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1917년 11월 레닌은 政權을 掌握했을 때 러시아帝國은 非러시아인들의 민족운동으로 流動的事態가 일어났는데 그때 레닌은 民族自決政策을 實踐하려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小數民族을 抑壓 支配하는 帝國主義的 政策을 堅持하였을 뿐 民族自決政策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1917년 츠아軍隊가 敗北한 이후에 일어난 混亂 가운데 個別獨立政府가 키비아(Khiva)와 북하라(Bokhara)에 수립되었고 西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Azerbaijan)과 조르지아(Georgia)에 수립되었다. 그러나 불쇄비키들은 그 모든 個別政府들을 打倒하고 1921년 까지는 모스크바의 統制를 받는 行政官들로 대치하였다. 外蒙古에는 소련軍이 3년 후에 衛星政府를 수립하였고 아르메니아와 조르지아에서는 反러시아蜂起가 彈壓을 받았다. 스탈린은 第2次大戰을 기화로 벡사라비아(Bessarabia)와 北部부코비나(Northern Bukovina), 타누투바(Tannu Tuva) 및 핀랜드의 一部, 거의 절반의 폴란드 그리고 리트비아(Latvia), 에스토니아(Estonia) 및 리투아니아(Lituania)와 같은 발틱沿岸海의 獨立國家들을 병합하였다.

소련共產主義者들의 目標은 共產주의러시아가 아니라 世界의 共產化였다. 마르크스主義科學에서 定立된 것 처럼 人類는 必然的으로 連續的인 여러 段階를 거쳐 社會主義에 到達하고 社會主義를 거쳐 共產주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歷史의 法則이다. 그러나 共產主義者들은 가만히 앉아서 歷史가 자기일을 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이 過程을 促進시키기 위해 全力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信念이기 때문에 2次大戰 이후 45년과 50년 사이에는 이른바 解放된 東歐에 주둔한 赤軍의 보호로 그 地方의 共產主義者들은 東歐 7個國에서 政權을 掌握하였고 그들 國家는 완전히 소련의 古典的 의미로서의 植

(16) 소련의 帝國主義的 領土膨脹相에 대해서는 Hugh Seton-Watson, *The New Imperialism*, (Dufour Editions, 1962) 4. *The Soviet Empire*, 5. *The Soviet Satellites*, pp.54-96. 參照. Brian Crozier, *Neo-Colonialism*, (The Bodley Head, 1964) Part I, pp.7-16. 參照.

民地로 轉落하였다. 그들은 不平等한 通商條約으로 착취당하였다. 그리고 헝가리나 체코人民들이 러시아의 支配者와 국내공산주의 支配者들에게 反抗하여 叛亂을 일으켰을 때 소련軍은 無條件 進駐하여 그 蜂起를 強壓하였다.

1956년 이래 헝가리를 포함한 東歐諸國들이 그 以前보다 자유롭게 된 것을 否認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태발전만으로 소련이 古典的 意味로서의 植民地 國家라는 概念을 消散시켜 줄 수는 없다. 소련政府는 東歐 7個國을 계산에 넣지 않더라도 대러시아인이 주동이 되어 9,000萬의 非러시아人을 직접 統轄하고 있으며 여타 小數民族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戰後의 소련은 戰前에 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영토보다 더 많은 領土를 갖고 있는 唯一한 「帝國主義的」帝國인 것이다. 그런데 戰後 美國은 自發的이든 非自發的이든 古典的인 植民政策을 거의 清算하고 있음은 소련과는 너무나도 對照的이라 아니할 수 없다.

68年 소련의 체코侵攻事態 이후 制限主權論을 提起한 것은 더욱 可恐할 일이다. 체코侵攻事態 이후에는 자유에 대한 彈壓이 일층 심하게 되어 솔제니친 같은 作家는 69年 소련作家同盟에서 除名까지 당하고야 말았다. 制限主權論과 더불어 極端的인 자유의 制限은 民族自決原則과는 正面으로 違背될 뿐만 아니라 征服과 侵略의 의도를 留保하고 있음이 分明하다. 이러한 소련의 의도를 솔제니친은 그의 政治的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公開狀을 통하여 文學的으로 잘 表現해 주고 있다. 「重病을 치루고 있는 우리社會가 치하고 있는 이 危急時期에 여러분은 항상 憎惡와 경계를 받고 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主義以外的 건설적인 提案은 하나도 할 수 없다. …인간을 쇠사슬로 묶으면 動物國家로 역행하는 것이다. … 건전한 사회의 第一條件은 正直과 완전한 公開된 상태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는 祖國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利益에만 눈이 어두운 자들이다.」⁽¹⁷⁾ 참으로 자기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소련이야말로 制限主權論을 들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당연한 趨勢일런지도 모른다. 솔제니친이 지적한 바를 吟味할 때 소련은 앞으로도 「帝國主義的」妄動을 계속할 것으로 豫知된다. 체코侵攻事態로 파생된 制限主權論의 대두는 그것을 實證해준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叙上한 바를 종합해서 생각할 때 브라이언·크로지어가 볼셰비키革命 이후 「소련內에서는 民間資本은 撤廢되었어도 트아帝國의 國境과 일치되는 그 國境안에서 帝國主義는 終息되지 않는다.」⁽¹⁸⁾는 痛快한 一聲은 正鵠을 찌른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휴·세튼-왓슨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도 소련이 「帝國主義的」帝國의 발을 벗지 못했음을 實證하는 글귀였다.

(17) 日本時事通信社『世界週報』1969年 12月 2日號「公開狀」參照.

(18) Brian Crozier, op. cit., p.8.

「소련은 共產政權을 힘으로써 마음 내키지 않는 民族에게 強要했으며 또한 소련은 힘으로 위협함으로써 共產政權을 유지했다. 마치 英國의 帝國主義支配가 초기의 東印度會社때 보다는 後期에 와서 더 온화하고 進步的인 것이 되었듯이 흐루시초프시대의 소비에트의 植民地支配는 스탈린時代보다 온화하고 진보적인 것이 됐을 뿐인 것이다. 그러나 植民地支配라는 점에서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 地球上에서 재빨리 사라져 버린 낡은 유럽帝國들의 植民地支配와는 달라서 소련의 植民地支配는 더욱 광범하게 사용할 것을 꿈꾸는 것이다.」⁽¹⁹⁾

總括컨대 소련은 츠아帝國時代보다 더 強力한 「帝國主義的」帝國으로 등장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西方列強들은 古典的 의미로서의 「帝國主義的」帝國을 청산하였다. 오늘날 美國은 分明히 「帝國的」帝國이기는 하지만 소련과 같은 「帝國主義的」帝國은 아니다.

視角을 달리하여 美國과 소련 兩國이 가지고 있는 憲法構造를 分析해 보아도 소련은 「帝國主義的」帝國임이 分明하다.

소련聯邦憲法 18條2項에 보면 各聯邦構成共和國는 諸外國과 직접 關係를 맺고 協定을 締結하며 外交使節 및 領事를 교환할 權利를 갖는다고 規定되어 있다. 條約締結權과 外交使節派遣權을 갖는다는 것은 15個 聯邦構成共和國이 各己 對內外的 主權을 갖는 獨立國家임을 의미한다. 各己 가지고 있는 主權은 憲法 64條에 規定된 內에서만 制限된다고 15條에 規定되어 있다.⁽²⁰⁾

(19) Hugh Seton-watson, op. cit., pp.95-96.

(20) 소련聯邦憲法 第15條(聯邦構成共和國의 主權): 聯邦構成 共和國의 主權은 소련聯邦憲法 第14條에 規定된 範圍 內에서만 制限된다. 그 範圍 外에서는 聯邦構成共和國는 國家權力을 自主的으로 行使한다. 소련聯邦은 聯邦構成共和國의 主權에 屬하는 權利를 保護한다.

소련聯邦憲法 第14條(聯邦의 管轄事項): 國家權力의 諸最高機關 및 國家行政의 諸機關에 의하여 代表되는 소련聯邦의 管轄에 속하는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國際關係에 있어서 소련聯邦을 代表하는 것, 소련聯邦이 外國과 條約을 締結 批准 및 廢棄하는 것 및 聯邦構成共和國와 對外國과의 相互關係에 있어서 一般規準을 설정하는 것
2. 戰爭 및 講和의 諸問題
3. 新共和國의 소련聯邦編入
4. 소련聯邦憲法遵守의 監督 및 聯邦構成共和國憲法와 소련聯邦憲法과의 適合의 確保
5. 聯邦構成共和國 間의 境界를 變更하는 데 대한 確認
6. 聯邦構成共和國 內에서 새로운 地方, 州, 새로운 自治共和國 및 自治州를 形成하는 데 대한 確認
7. 소련聯邦의 國防組織, 全兵力의 統轄, 聯邦構成共和國의 軍隊編制組織에 관한 指導原理의 確立
8. 國家의 獨占에 의한 外國貿易
9. 國家治安의 維持
10. 소련聯邦의 國民經濟計劃의 樹立
11. 소련聯邦의 統合國家豫算 및 그 執行에 관한 報告의 確認과 聯邦豫算 共和國豫算 및 地方豫算의 編成에 充當되는 租稅 및 收入의 設定
12. 全聯邦에 所屬되는 銀行, 工業과 農業의 施設 및 企業과 商業企業의 管理, 聯邦構成共和國에 所屬되는 工業 및 建設의 一般의 統轄
13. 全聯邦에 걸치는 運輸 및 通信의 管理
14. 通貨 및 信用制度의 統轄
15. 國家保險의 組織
16. 借款의 締結 및 供與
17. 土地使用 및 地下埋藏物, 森林 및 水域利用에 관한 基本原則의 樹立
18. 教育 및 保健의 分野에 관한 基本의 原則의 樹立
19. 國民經濟統計에 관한 統一의 制度의 組織
20. 勞動立法에 관한 基本原則의 樹立
21. 裁判所構成 및 訴訟節次에 관한 立法, 刑法典 및 民法典의 立法要綱의 設定
22. 聯邦國籍에 관한 立法 및 外國人의 權利에 관한 立法
23. 婚姻 및 親族에 관한 立法要綱의 設定
24. 全聯邦의 恩赦令의 發布

憲法 18條 2項은 1936년 소련방헌법改正 當時 스탈린이 앞으로 展開될 국제정치추세를 예측하여 各 聯邦構成共和國을 國際機構에 參加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戰後處理를 위한 알타會談에서 앞으로 創設될 유엔에 16個國을 원가맹국으로 加入시켜 줄 것을 주장한 것으로 明白해졌다. 事不得已하여 그후 소聯邦中央政府와 白러시아共和國과 우크라이나共和國이 유엔의 原加盟國으로 落着된 것은 15條와 18條 2項에 根據하는 것이었다.

憲法構造上 各 聯邦構成共和國은 對外主權을 갖는 獨立國家이기는 하지만 權力行使面에서는 聯邦憲法 30條에 規定된 聯邦國家權力的 最高機關인 聯邦最高會議에 완전히 예측되고 있다. 다시말하면 소련共産黨의 一柱石의인 指令에 各 聯邦構成共和國은 左之右之되고 있는 것이 그대로의 實相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15個의 獨立國家를 政治·軍事的으로 征服하고 있다는 결과 이외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와같이 소聯邦憲法構造面에서 해석할 때 소련은 中央政府가 獨立國家인 15個聯邦構成共和國을 政治·軍事的으로 征服 統治하는 참으로 「帝國主義的」帝國임을 아무도 否認할 수 없는 論理的 根據가 있는 것이다. 레이몽·아롱이 「오늘날 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共和國은 武力과 中央集權으로 統治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聯邦이라기 보다는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帝國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妥當할 것이다.」(21)라고 概括한 것은 事實을 事實대로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美國의 憲法構造는 소련것과는 判異하다. 美國의 各州는 對外的 主權이나 獨立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第1條 10項에 보면 어느 州라도 條約, 同盟 또는 連合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各州는 美合衆國政府의 主權管轄의 領土로서 規定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美國의 各州에 허용되고 있는 自治權의 幅은 소聯邦構成共和國들 보다 훨씬 넓다. 自治權의 幅이 넓다 좁다 하는 것은 憲法構造上의 問題라기 보다는 實際로 行使되는 權力政治의 屬性과 관계되는 것이다. 一柱石의인 政黨政治權力을 行使하는 소련의 경우 自治의 幅은 좁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叙上한 바와 같은 論據, 다시말하면 全地球의인 軍事的 콤미트먼트의 內容 및 節次上의 見地에서 보나 戰後 古典的 植民主義政策與否라는 見地에서 보나 또는 憲法構造上의 屬性에서 보나 美國은 「帝國的」帝國인데 반하여 소련은 「帝國主義的」帝國임이 理論的으로나 實證的으로나 判明되었다.

自由主義陣營에서는 결코 制限主權論과 같은 엄청난 妄動이나 妄發은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예사로 制限主權論을 云謂하는 소련이고 보면 그들은 그들자신이 「帝國主義的」帝國

(21) Raymond Aron, op. cit., p.259.

임을 豪言하는 결과 이외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흔히 불리어지는 美帝國, 소帝國이라는 그 帝國이 갖는 참뜻을 알지 못하고 無分別하게 쓰는 경향이 없지도 않다. 帝國은 帝國이지만 美帝國과 소帝國은 本來的으로 그 質을 달리하는 것이다. 美國은 「帝國的」帝國인데 반하여 소련은 「帝國主義的」帝國인 것이다.

V. 追 記

序論에서 말한 바와 같이 罵倒의 對象은 「帝國的」帝國이 아니라 「帝國主義的」帝國인 것이다. 따라서 反帝國主義라 할 때는 美國보다 소련을 겨냥하는 것이 당연한 理致일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오늘날 非同盟그룹이 주장하는 反帝國主義는 소련을 겨냥하기 보다 美國을 비롯한 西方列強들을 겨냥하는 濃度가 짙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물음은 論理的인 理致로서 해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非論理的인 感情性에서 解答을 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非同盟勢力의 政治理念은 1959年 반등精神으로부터 繼承되어 나온 反帝·反植民의 民族主義다. 그들 政治哲學의 理論展開이 어떻게 되어있든 간에 國際政治現實面에서는 論理的인 理性보다 感情的인 非理가 앞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난날 植民地勢力이었던 西方側列強을 無條件 감정적으로 증오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反西方의인 偏向性은 論理的인 理致에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非同盟그룹의 感情的인 性向은 個別國家利益優先時代와 交叉됨으로써 非理와 昏迷性을 더하여 유엔에서는 前後論理가 모순되는 決議가 속출되고 있다. 非同盟세력들의 感情的인 非理性은 오랜 歷史的 축적의 결과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당장 說得해서 고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오랜 시일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5年 8月 리마에서 開催된 非同盟外相會議에서는 南北韓의 加入案에 普遍性의 原則을 適用하지 않고 北傀단을 加入시키는 편파적인 行동을 하였다. 普遍性의 原則을 지키지 않고 感情的인 偏頗行動을 한다는 것은 그들은 非同盟이 아니라 同盟이라는 自家撞着에 빠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75年 7월 14일 위스컨신大學校 世界問題研究所에서 「世界의 試鍊과 國際協助」라는 題下에서 행한 키신저 美國務長官의 演說文 중에 다음과 같은 句節은 오늘날 非同盟勢力들의 實相을 그대로 指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強大한 軍事的 同盟으로부터 스스로의 主權과 獨立을 유지하기 위해 非同盟의 立場을 택한 국가들이 지금 그들 자신의 엄격한 同盟을 形成하고 있음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強力

하게 뭉친 블록은 逆說的이지만 非同盟國家들의 同盟이다。」⁽²²⁾ 非同盟의 기치하에 뭉친 그들이 同盟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事理不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自家撞着, 事理不同, 感情的인 非理에 가득 차 있는 非同盟 그룹이기는 하지만 그들과의 外交를 전혀 外面할 수 만은 없다. 국제적인 相互依存性의 增大傾向과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정치력의 浸透領域이 擴大되어 있다는 狀況 등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質 좋고 끈기있는 努力으로 非同盟國家들로 부터 크레디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狀況外交를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繼續해야만 할 것이다.

일찌기 누가 「機會가 없음을 不平한 偉人은 없었다.」고 말했듯이 슬기롭고 繁榮된 國家는 결코 機會가 없음을 不平하지는 않는 법이다. 끈기있는 努力으로 質 좋은 高次元의 狀況外交를 떠나가면 언젠가는 機會가 주어질 것이다. 感情보다 理性으로 非理보다 論理的인 理致로 相對方을 설득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感情的인 非理보다 論理的인 理致에 따라 「帝國的」帝國(美國)에 대해서가 아니라 「帝國主義的」帝國(소련)에 反旗를 들 때가 올 것이 歷史的 必然이 아닐까?

모든 일에 대해서 失望하는 것도 拋棄하는 것도 禁物인 것이다. 끈기있는 努力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機會는 올 것이다. 「機會가 없음을 不平하는 슬기로운 國家는 없다.」라는 教訓을 우리는 銘心해야 할 것이다.

(22) 「오늘의 유엔」美國政策 및 背景시리즈 駐韓美國公報院 刊 1975년 7월 No.10 p.7.